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CNN Business: 1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 지수, 완만하게 둔화
- Bloomberg: 연준 관리들, “금리 인하 속도는 데이터에 달렸다”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월가는 물가 보고서 직후에 안도의 분위기

[미국 대선]

- Bloomberg: 여론 결과, “바이든은 고령이고 트럼프는 위험하다”

[자동차 용자]

- Bloomberg: 자동차 용자, 지난 2020년 8월 이래 가장 까다롭다

[미중 경제]

- WSJ: 바이드, “중국 자동차사들, 미국 국가 안보 위협”

[오일]

- WSJ: 청정 전력을 시추하는 프래킹 기업들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테크산업의 계속되는 해고에도 직원 수가 그대로인 이유는?
- WSJ: 연방항공국, 보잉의 품질 관리 계획에 90일 기한 부여
- WSJ: 운송 대기업 Knight-Swift, 최고 경영진 교체
- Bloomberg: 베스트 바이 주가 상승...판매 감소 줄면서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CNN Business: The Fed's favored inflation gauge eases to slowest pace in more than two years

1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 지수, 완만하게 둔화

- 1월 물가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늘 목요일 발표된 인플레이 지수에 따르면 연준의 목표인 2%를 향해 완만하나마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.
- 1월의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년도 동월 비교 2.4% 상승해 12월의 연율 2.6%보다 둔화되었다.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핵심 개인소비지출 지수는 12월의 연간 2.9%에서 2.8%로 낮아졌다.

CNN Business 기사

Bloomberg: Fed Officials Emphasize Data to Guide Pace of Interest-Rate Cuts

연준 관리들, “금리 인하 속도는 데이터에 달려있다”

- 3명의 연준 관리들은 금리 인하 속도는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말해 금리 인하 경로는 예전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는 다를 수 있다고 시사했다.
- 보스턴 연방은행총재와 뉴욕 연방은행총재는 첫 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가 적절하다고 말했고 아틀란타 연방은행총재는 올여름 중에 금리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특히 뉴욕연방은행총재는 “금리 인하와 속도는 인플레이션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 여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”며 “특정하게 고정된 일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따라 맞춰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Wall Street Gets Relief After Inflation Report: Markets Wrap 월가는 물가 보고서 직후에 안도의 분위기

- 당초 강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올지 우려했던 월가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 수치가 예상과 부합되는 결과가 나오자 안도의 모습을 보였다.
- 핵심 개인물가지출 지표가 올해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주식과 채권은 손실을 만회했다. 이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가 최근 급등하자 트레이더들이 연준 금리 인하 베팅을 철회한 후에 일어난 분위기다.
- 물론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연준의 목표인 2%보다 높지만 오늘 목요일 발표 지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됐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대선]

Bloomberg: Biden Is Too Old But Trump Is Dangerous, Swing-State Poll Shows

여론 결과, “바이든은 고령이고 트럼프는 위험하다”

-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들은 바이든 후보는 “너무 고령”이라고 블룸버그 모닝 컨설팅 조사 결과 밝혀졌다. 그의 고령이 민주당 유권자에게조차 우려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다.
- 이들 핵심적인 스윙 스테이트의 유권자 10명이 그렇게 답했다. 현재 바이든은 81세.
- 반면에 77세의 트럼프가 너무 고령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. 그러나 이들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취약점에 직면해 있는 데

다 위험하다고 답했다.

Bloomberg 기사

[자동차 용자]

Bloomberg: Car Loans Haven't Been This Hard to Get Since August 2020 자동차 용자, 지난 2020년 8월 이래 가장 까다롭다

- 미국인들이 자동차 용자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. 금리가 높은 데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은행들은 고객의 채무 불이행 리스크 가능성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.
-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신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. 이런 상황에서 평소 재정 상태가 양호한 미국인들도 용자 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큰 다운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신용점수 구매자는 구입을 포기하게 된다.
- 지난 2020년 8월 이래 자동차 대출 승인은 가장 낮는데 작년 대비 1.6%포인트 용자 승인율이 낮아졌다.

Bloomberg 기사

[미중 경제]

WSJ: Biden Orders Probe Into Foreign Car Parts, Citing China Risks 바이든, “중국 자동차사들, 미국 국가 안보 위협”

-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기술이 미국의 잠재적인 안보 리스크를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연방 상무부에 차량 내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조사하라고 명령했다.
- 그는 목요일 “중국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주도하려는 노력 때문에 미국에 분명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- 중국산 자동차들이 미국 국민들과 인프라에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해 중국에 넘길 수 있다며 위험성을 강조했다.

WSJ 기사

[오일]

WSJ: Frackers Are Now Drilling for Clean Power 청정 전력을 시추하는 프래킹 기업들

-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셰일 혁명을 일으킨 기술을 통해 신생 산업을 청정 전력의 대규모 생산장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며, 지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.
- Chevron, BP, 그리고 Devon Energy가 현대 지열 스타트업과 프로젝트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는 화석 연료 회사에 속한다. 이 회사들의 대부분은 파쇄 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지만, 석유와 가스 대신 지하열을 찾는다.
- 이러한 새로운 지열 산업은 석유 및 가스, 기술과 친환경 전력 산업 간의 혜택이 합쳐진 결과이다.

WSJ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Tech Layoffs Keep Coming. Why Is Head Count Barely Budging? 테크산업의 계속되는 해고에도 직원 수가 그대로인 이유는?

- 미국 최대 테크 기업의 일부는 직원 수를 줄이면서도, 더 많은 수의 직원을 고용했다.
- 연말 공시에 따르면 Microsoft, Alphabet, 그리고 Netflix는 각각 팬데믹 이전보다 50%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.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MEYA, AMAZON.com의 인력 고용이 2019년 이후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.
- 이들 기업은 2022년 말부터 총 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으나, 지속적인 채용과 합병 인수는 최근의 감원 물결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WSJ: FAA Gives Boeing 90 Days to Come Up With Quality-Control Plan 연방항공국, 보잉의 품질 관리 계획에 90일 기한 부여

- 미연방항공국(FAA)은 지난달 알래스카 항공 제트기의 도어 플로그 공중 폭발 사건 이후, 품질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90일 이내에 종합적인 실행 계획을 개발할 것을 보잉사에 요청했다.
- 미연방항공국의 Mike Whitaker 행정관은 수요일 보잉 최고 경영자 Dave Calhoun과 그의 안전팀을 만난 이후, “보잉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.”고 말했다.

WSJ 기사

WSJ: Trucking Giant Knight-Swift Swaps Out Top Leadership 운송 대기업Knight-Swift, 최고 경영진 교체

- 미국 최대 트럭 운송 회사 중 한 곳인 Knight-Swif의 David Jackson이 최고 경영자이자 이사직에서 물러났다.
- 지난 화요일, Knight-Swift는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Adam Miller가 피닉스 본사의 CEO를 맡고, M&A 수석 부사장이었던 Andrew Hess가 Miller의 뒤를 이어 재무 책임자로 임명될 것이라 밝혔다.
- SJ 컨설팅에 따르면 Knight-Swift는 2022년 4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, 매출 기준 미국 최대 트럭운송업체이다.
- 잭슨 CEO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는데 최근 운임 하락과 해운 수요 감소 등 어려운 시장 환경 때문에 수입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WSJ 기사

Bloomberg: Best Buy Sales Decline at Slower Pace as Demand Improves 베스트 바이 주가 상승...판매 감소 줄면서

- 베스트 바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.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약한 가운데 2년간 슬럼프가 반전 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.
- 소매점 부문의 중요한 수치인 비교 판매는 4분기에 4.8% 감소해서 당초 분석가들은 평균 예상 감소치는 5.3% 였다.
- 조정 주당 순이익은 2달러 72센트로 기대치를 넘어섰다. 이 분기는 2월 초까지 진행되었고, 베스트 바이의 최대 연중 성수기인 연말연시 시즌이 포함되어 있다.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연준인사들, 조기 금리인하에 거리 뒤편..."달력 아닌 지표로 판단"

연준 3인자 뉴욕연은 총재, 연내 0.75%p 금리 인하에 "합리적 출발점"

보스턴 연은 총재 "올해 중 나중에 완화적 통화정책 시작하는 게 적절"

미국의 1월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기준금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,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(연준·Fed) 고위인사들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거리를 두며 지표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.

28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'연준 내 3인자'로 평가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(연은)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"올해 중 나중에(later this year)"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

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인 2% 수준으로 내려가려면 할 일이 더 있다는 것이다.
그는 최근 미국 매체 약시오스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